

감정노동자 근로여건 개선 앞장

전주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주시가 콜센터 등의 블랙리스트 고객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22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전주시 소속 공공

부문 감정노동 종사자 228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공공부문의 업무와 노동과정 특성, 감정노동실태 및 노동상황,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과 수행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대부분이 민원인과 고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거나(85.2%), 인

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경험한(90.7%)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억지주장과 무리한 사과 요구, 업무방해 등을 경험한 비율도 88.9%에 달하는 등 응답자 다수가 심각한 감정노동의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용역연구진은 △악성고객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 강구 △조직 내 전담기구 및 책임자 지정 △감정노

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악성민원 응대 후 휴게시간 및 공간보장 △직업상담 등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난해 민간부문인 콜센터의 감정근로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장치 등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내달 2일 열립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30여 팀이 참가하는 '제12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오는 9월 2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22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사전 기자회견 모습.

덕진구, 하반기 여성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덕진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키워 자아실현 및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덕진구에 따르면 '여성취업 아카데미'는 총 3개의 교육과정으로 ▲(사)창의예술연구회, 토달아트지도사 7주 과정(9.7~10.26/총 8회)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아동요리지도사 1급 9주과정(10.2~11.27/총 8회)과 창의로봇지도사 5주과정(10.2~10.30/총 8회)이며, 교육과정 80%이상 이수 시 교육비(수강료, 재료비 포함)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덕진구에서는 금년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 1월 주민센터와 민원실 내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선호도 순으로 상, 하반기 각 3개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덕진구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경력단절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 우선 선발)하며, 신청기간은 창의예술연구회(서신등 마감)는 9월 5일까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평화동 BYC빌딩)는 9월 28일까지이다. 단, 전화신청은 받지않고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태풍 '솔릭' 복상에 전주시도 비상... 피해예방 만전

김승수 시장, 그늘막 철거

옥외광고물 점검 등 주문

복상중인 제19호 태풍 '솔릭(SOLIK)'에 전주시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직원에 주문했다.

김 시장은 22일 전주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제19호 태풍 솔릭 관련 재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분이별 태풍 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폭염에 대비해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늘막 철거 ▲하천 둔치 차량 이동 및 공사지체 반출 ▲공사현장 점검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지역 순찰 강화 ▲옥외광고물 추락 위험 점검 ▲강풍으로 인한 낙하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피해 최소화 ▲가로수 등이 전도될 경우 신속히 처리할 것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2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제19호 태풍 솔릭 관련 재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분이별 태풍 대비태세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 경찰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만약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으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조기에 파악해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절차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함에 따라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태풍 기상특보 해제시까지 '주의보' 단계로 격상했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지난 7월 6일 발령한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에서 특정시기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을 알려주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 총 3단계에 걸쳐 운용된다.

이에 따라 부안 해경은 제19호 태풍 '솔릭' 접근으로 22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 23~24일 전국에 너울살파도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피해확산이 우려되어 '주의보' 단계로 격상하게 되었다.

특히 부안 해경은 제19호 태풍의 북

상으로 안전사고가 확산하는 경우에 피해상황과 향후 전망을 가늠하여 "경보"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안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통제 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지는 안 되고 너울성 파도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가 격상된 만큼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위험이 크므로 본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소방서, 태풍 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

정읍소방서(서장 김중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수증펌프, 엔진펌프 등 소방장비 안전점검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제19호 중형 태풍인 '솔릭'은 23일 03시에 목포 남쪽 약90km 해상까지 북상하여 우리 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다가 23일 11시경에는 우리 도를 직접 강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관내 상습침수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공사장 및 캠핑 야영장 등 현지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피해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대비 행동요령으로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 자제 등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환자경험 평가 '상위권'

예수병원, 환자권리보장 2위 간호사서비스 9위 등 차지

예수병원(병원장 권창영)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지난 9월 공개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에서 전국 종합병원 중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 중 환자권리보장(86.17점 2위) 간호사서비스(90.78점 9위) 의사서비스(85.12점 9위)를 포함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 획득, 전국 최고 수준의 환자중심 병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처음으로

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1만4970명의 성인환자를 대상, 전화조사로 이루어 졌다.

권창영 병원장은 "12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매일 환자체험을 진행,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미읍수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관 설치

전주시가 수돗물공급이 되지 않던 고지대 소규모 자연마을과 신규 조성된 소규모 기업, 단독주택 등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에 따르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미읍수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5억원을 투입해 '2018년 하반기 상수도관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유아동 재전마을과 금상동 원금마을 등 소규모 자연마을과

개발행위로 인한 독립된 소규모 기업 및 단독주택 등 6개소로, 시는 총 2km의 상수도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38세대의 주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원금상마을에는 기업펌프를 설치해 마을주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총 7억원을 투입해 송천동 발단마을의 4개 마을에 상수도관을 설치, 25세대(70여명)의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했다. /송효철 기자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전주시, 27~31일 올 하반기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띄워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를 위한 2018년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규모는 총 60억원으로, 제조업 40억원과 소상공인 3억원, 청년기업 1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확보된 기금의 3배까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추가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상반기 지원했던 82억원을 포함하면 총 142억원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비전주)업체, 우수한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융자지원 신청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인동일 시 중소기업과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의 융자 지원을 통해 전주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완산소방서와 간담회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22일 구청회의실에서 안준식 완산소방서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재해에 따른 신속한 정보공유와 현장에서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8일 전주시 도심 주변 야산에 대형 산불 발생으로 주민 13가구를 신속히 대피시키고 산불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진화에 구슬땀을 흘린 완산소방서 대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관들은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관내에도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송효철 기자

매월 2회 청소년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전주소년원 집단멘토링

전주소년원 박순정 소년보호위원 회장 등 회원 30여명은 22일 타는 듯한 폭염에 이렇듯하지 않고 평소처럼 월 2회 실시하는 집단멘토링 활동을 위해 전주소년원 비행청소년 학생식당을 방문했다.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는 교육위원회, 사회정착지원위원회, 종교위원회, 어머니위원회 등 총 135명으로 구성됐다.

박순정 회장은 배식중에 학생에게 다가가 고기에 상추와 된장고추를 싸서 입 한가득 넣어주면서,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등 엄마와 같은



손길을 내밀었다. 어떤 위원은 손을 잡고 등을 따뜻하게 쓰다듬는 등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오연호 전주소년원장은 "비행 청소년들을 향한 위문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고, 이처럼 존귀히 여김 받는 학생들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며, "어른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 답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